“달리기는 인생의 행복”…봄꽃 만개 나주 영산강변 마라톤 성료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주최·나주 마라톤동호회 주관 ‘제9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풀코스 참가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3000명 참가 청각장애인 이동주씨 10㎞ 1등 완주

마라토너 3000여 명이 벚꽃과 유채꽃이 활짝 핀 전남 나주 영산강변을 따라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전국 마라톤동호회원 3000여명이 참여한 ‘제9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가 2일 오전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엠디에스앤씨·나주 마라톤 클럽이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시·화순군)국회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대동 광주시장애인체육회육상연맹회장, 조덕선 SRB 미디어그룹 회장,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라톤대회는 42.195㎞를 완주하는 풀코스와 21㎞ 길이의 하프, 10㎞, 5㎞ 등 4코스로 나뉘어 펼쳐졌다.

외국인과 70~80대 고령 마라토너, 유모차에 자녀를 태우고 질주하는 아빠까지 전국 각지 다양한 선수들이 참여해 화창한 날씨 속 유채꽃·벚꽃이 만개한 영산강변을 달렸다.

이들은 가족, 친구, 연인, 마라톤 동호회원과 함께 나주 빛가람대교를 지나 승촌보, 결승점인 스포츠파크까지 달렸다.

결승선에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들어오는 마라토너를 향한 환호와 격려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풀코스는 마성민씨가 2시간 45분42초53의 기록으로 영예의 1위에 올랐다. 강두희(2시간49분8초99), 김영집(2시간52분47초61)씨가 뒤를 이었다.

여자부는 김향희(3시간19분40초2), 윤복희(4시간10분14초85), 신유경(4시간24분4초4)씨가 각각 1·2·3위에 올랐다.

하프코스 남자부는 1시간16분47초51을 기록한 마틴 가로키 무리우키씨가 1위를 차지했다. 케냐에서 온 마틴 가로키 무리우키씨는 본국에서부터 꾸준히 마라톤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석(1시간16분53초76)·이건희(1시간18분33초23)씨가 2·3위를 기록했다.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주최·나주 마라톤동호회 주관 ‘제9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풀코스 순위권 완주 마라토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프코스 여자부는 이은혜씨가 1시간30분36초23의 기록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추은하(1시간33분50초78), 조은숙(1시간38분2초1)씨는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10㎞ 구간 남자부에선 청각장애인 이동주(35분34초11)씨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요인(36분4초53)·김승관(36분23초82)씨가 차례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여자부는 박은정(41분51초51)·최해리(43분19초73)·안채빈(43분36초43)씨가 각 1~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선 고령의 나이에도 3시간 50분 만에 풀코스를 완주한 고영일(75)씨가 주목을 받았다.

20년째 마라톤을 해온 고씨는 “80살까지 풀코스를 시간 안에 완주하는 게 목표”라며 “달리기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출신 마티 호남대학교 영어학 조교수도 “좋은 풍경을 보면서 마라톤을 뛰어 상쾌하다”며 “2주 전 서울에서 참여한 마라톤대회보다 1분 더 시간을 단축해 뜻 깊다”고 밝혔다.

대회 사무국은 경품으로 나주배즙과 쌀 등을 전달했다.

이날 대회에선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소속 학생들도 참여해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근육 이완과 테이핑 봉사를 했다.

독도사랑페이싱팀은 레이스패트롤과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선수들의 완주를 도왔다. 나주경찰서 경찰관들도 마라톤 주요 경로의 차량 통행 관리에 힘썼다.

조덕선 SRB미디어그룹회장은 “대회를 찾은 선수와 관계자 모두 영산강변의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올해 9회째를 맞은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린 상생·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손흥민, 바르셀로나 관심 받는다’…스페인 매체 보도

왼쪽 윙어 보강 원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0·토트넘)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 FC바르셀로나의 관심을 받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매체 카탈루냐 라디오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홋스퍼의 윙어 손흥민을 영입해 측면을 보강하길 원한다.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독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등의 관심을 받은 적은 있으나, 바르셀로나 이적설은 처음이다.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가 왼쪽 측면 공격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손흥민을 비롯해 모하메드 살라, 루이스 디아스(이상 리버풀)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카탈루냐 라디오는 “바르셀로나는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윙어가 필요하다.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 포지션 보강을 노린다”고 설명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파리생제르맹(프랑스)으로 떠난 뒤 주춤했던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뮌헨에서 데려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27경기를 치러 승점 71(23승2무2패)로 2위 레알 마드리드(승점 56)에 무려 15점 차 앞서 있다.

30대가 넘은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올 때만 해도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에서 리그 17골로 득점 1위를 달리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바르셀로나가 30대 줄에 들어선 윙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바르셀로나의 측면은 페란 토레스, 가비 등이 맡아왔으나, 메시의 후계자로 평가받던 안수 파티가 잦은 부상에 시달려 확실한 왼쪽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지에서도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손흥민의 열혈 팬이라며 팀에 즉시 전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적지 않은 이적료가 예상돼 영입이 쉽지 않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다. 게다가 지난 시즌 리그 23골로 득점왕에 올랐지만, 이번 시즌은 리그에서 6골밖에 올리지 못하는 등 내림세도 변수다.

여자축구 국가대표 콜린 벨 감독 (사진 = 대한축구협회 제공)

女축구 벨 감독 “결과 중요 월드컵…현명한 운영 필요”

올해 7월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을 준비 중인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잠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오전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했다.

총 27명 중 23명이 모였다. 해외파 윤영글(BK헤켄·스웨덴), 조소현(토트넘·잉글랜드), 이금민, 박예은(이상 브라이튼·잉글랜드)은 4일 합류한다.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던 조소현은 9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다.

이번 훈련과 평가전은 월드컵 출전을 위해 모이는 6월 이전 마지막 소집이다.

벨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축구를 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오랫동안 대표팀에 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돌아왔다. 정설빈(현대제철), 박혜정(스포츠토토), 전은하(수원FC)가 그렇다. 또 새롭게 발탁된 김진희(경주한수원)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소집에선 전술적인 부분을 주로 다룰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 모로코, 콜롬비아와 경쟁한다. 만만히 볼 상대는 하나도 없다.

벨 감독은 줄곧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조절하는 현명한 경기 운영을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벨 감독은 “현명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다루겠지만 월드컵은 더더욱 결과가 중요시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벨호는 오는 7일과 11일 잠비아와 두 차례 A매치를 갖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종별종합선수권 2관왕 차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서울시청)가 제37회 전국남녀 종별종합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심석희는 1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자 500m,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석희는 여자 일반부 500m 결승에서 44초408을 기록해 노도희(화성시청·45초232), 박지윤(의정부시청·45초304)을 제쳤다.

그는 여자 1500m 결승에서는 2분39초28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박지윤이 2분39초554로 2위, 노도희가 2분39초827로 3위에 올랐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헌(강원도청)은 남자 일반부 1500m에서 2분17초151을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女 펜싱에뻬, 제25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금빛 찌르기’

2연속 에뻬 단체전 정상…사브르 최세빈 개인전 3위까지

전남도청 펜싱팀 단체사진 (왼쪽부터 김수민 코치, 김시은, 김양은, 유단우, 박소형, 유진실, 최세빈, 손정민, 김지현, 전수인, 박다은, 김용율 감독)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25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전남 해남(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남도청 女펜싱팀 에뻬 단체전 우승과 더불어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에뻬 단체전에서 전남도청(김향은, 박소형, 유단우, 김시은)가 출전하여 8강전에서 경기도 화성시청을 45:34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부산광역시청에 45:35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계룡시청을 45:35로 제압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에뻬 개인전에서는 김향은(전남도청)이 쟁쟁한 선수들을 물리치고 8강까지 진출하였으나, ”세계랭킹 1위“ 송세라(부산광역시청)을 만나 아쉽게 15:13으로 패하며 탈락했다.

개인전의 메달을 사브르에서 나왔다.

국제대회에서 4연속 입상하는 기록을 세운 최세빈(전남도청)은 뛰어난 경기력으로 16강에서 홍하은(서울특별시청)을 15:11, 8강전에서 최신희(익산시청)을 15:12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대표팀 동료인 전은혜(인천중구청)에 9:15로 패하며아쉽게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용율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한번 단체전 우승을 해서, 굉장히 기쁘다”며 “우리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더 훈련에 매진해 앞으로도 이러한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